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매일경제 A34

매일경제

2014. 7. 21

국제갤러리(주)

쿨하면서도 따뜻한 홍승혜 '회상'展



홍승혜의 설치작품.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이 문구를 마주친 적이 있는가. 붉은색 벽돌의 아르코 예술극장 앞에 글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 설치물을 만든 작가가 홍승혜(55·서울과기대 교수)다.

그는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며 예술가 로베르 필리우의 말을 인용한 이 작품을 영구 설치했다. 리듬감 있는 한글 속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눈에 띈다. 20년 가까이 ‘유기적 기하학’이라는 주제에 천착해온 그가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회상’이라는 개인전을 연다. 회고전 형식을 띠고 있다.

작가는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해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인 픽셀을 나열하고 새로 조합하고 분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이번 전시에는 사각형 ‘네모’ 이미지가 합쳐지고 나누어지고 변주되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회상’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부 흑백으로 제작됐다. 모던하면서도 건조한 느낌이다. 그러나 디지털적인 차가움 속에는 서정적이고 따뜻한 정서도 묻어 있다.

전시는 8월 17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